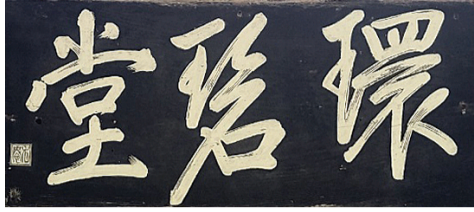




광주일보-한국학호남진흥원 공동기획

호남 누정-광주 <9> 환벽당



환벽당은 사촌(沙村) 김윤제가 퇴휴하고 자신의 고향인 충효동 무등산 자락에 지은 정자다.

# ‘푸르름 사방에 두른’ 정자...당대 문인들 詩文 오롯이

사촌 김윤제가 고향 충효동 무등산 자락에 건립  
충장공 김덕령 종조부이자 김성원·정철의 스승  
정철·임억령·김인후·백광훈 등 교류 이어갔던 곳  
식영정·소쇄원과 함께 ‘일동삼승’으로 명성

한차례 비가 쏟아지고 나자, 운무가 자욱하다. 산과 천이  
연한 곳이라 안개가 자주 이나 보다. 진경이 눈앞에 들어찬  
다. ‘푸르름이 사방에 가득한 집’이라는 맞춤형 뜻이 대략 가  
늬어 된다. 산과 들과 물이 하나에서 나온 듯 조화가 절묘하  
다.  
불어오는 바람에 흩날릴 같은 운무가 서서히 걷힌다. 환벽  
당(環碧堂). 사방이 푸르다. 눈에 닿는 모든 것들이 푸르다.  
나무의 우듬지는 물론이거니와 비스듬한 언덕에 바투 앉은  
바위도 푸르다. 실피리인 듯 들려오는 바람소리마저 푸르다.  
주위의 녹음방전은 무릎을 떠올리게 하고 비 온 뒤 정경은 더  
욱 다감하다.

자연이 건네는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인다. 어디선가 아  
니 누군가 건네는 소리인 듯 하다. 세상의 번다한 소리에 귀  
를 닫을 것, 그리하여 마음의 귀를 열 것, 무념무상의 틈 새로  
밀어와 같은 속삼임이 밀려온다. 산하가 건네는 말들에 슬며  
시 귀를 연다. 세상에 물든 어지러운 마음 버리고 푸른 생각,  
맑은 사유로만 채우라는 뜻일 터.

환벽당(環碧堂)은 사촌(沙村) 김윤제(1501~1572)가 지  
었다. 본관은 광산이며 자는 공노(恭老)다. 충장공 김덕령의  
종조부이며 김성원과 정철 등의 스승이기도하다. 사촌은 중  
종 26년(1531년) 문과에 급제해 홍문관 교리와 나주목사 등

지방관을 역임했다. 환벽당은 사촌이 퇴휴하고 자신의 고향  
인 충효동 무등산 자락에 지었다 한다. 한편으로 을사사화가  
일어나자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은거하면서 지었다는 설도  
있다.

정자 아래로 흐르는 내는 광주호의 상류 창계천이다. 계곡  
의 물소리가 비 온 뒤 더 장량하다. 귀를 씻는다는 말의 의미  
가 절로 이해가 된다. 무등의 품에서 발원해서인지 보면 불수  
룩 정감이 간다. 수려하지 않은데 수려함을 뛰어넘는다. 전라  
도 말로 ‘귀이 있는’ 풍경이다.

앞으로는 송강 정철의 가사 ‘성산별곡(星山別曲)’의 배경  
인 성산(星山)이 자리한다. 송강의 빛나는 절창은 스승인 사  
촌 김윤제에게서 배운 문장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. 환벽당은  
송강이 벼슬길에 나아가기까지 유숙하며 공부를 한 곳으로도  
알려져 있다. 송강이 사촌의 외손녀와 결혼을 하고 무등의 자  
락에서 당대 유학자들과 교류하고 배움을 이어갔던 중심에는  
환벽당이 있었다.

지금도 환벽당에는 송순을 비롯해 임억령, 김인후, 김성  
원, 백광훈 등의 제영(題詠)이 전한다. 문사와 명현들이 이곳  
을 드나들며 글월을 견주듯 풀어냈던 것은 자연이 베푼 은공  
과 무관치 않다.

창계천과 접하는 아래로 바위가 예뻐려 있다. 의젓한 소나  
무 바로 밑이다. 모든 시를 놓고 시절을 낚기에 좋은 자리다.  
이름을 조대(釣臺)라 한 연유가 절로 이해된다. 석천(石川)  
임억령이 ‘식영정 20영(息影亭二十詠)’을 읊은 것 가운데  
‘조대쌍송(釣臺雙松)’이 있는데 그런 정취를 담고 있다 하겠  
다.

환벽당은 입구의 작은 문으로부터 시작된다. 범박하게 말  
하면 환벽당은 창계천과 충효동 뒷산 언덕배기와 인근의 자  
연을 이룬다. 누정 그 자체만이 아닌 일대의 승경까지도 아  
우른다.

실오라기 같은 다소 가파른 언덕을 올라 환벽당을 알현한  
다. 이끼가 긴 계단들은 하나의 심표처럼 박혀 있다. 숨을 쉬  
듯, 다리힘을 하듯, 심회의 짐을 내려놓듯 그렇게 올라간다.  
예전의 선비들이 올랐을 무등의 한 언덕이 시공을 넘어 실제  
의 공간으로 다가온다.

환벽당의 구조는 여느 정자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. 정면 3  
칸, 측면 2칸의 팔작지붕 형태로 주위의 풍경에 자연스럽게  
섞여 있다. 가운데 2칸은 방이며 전면과 측면 모두 마루로 예  
뻐려 있다. 환벽당이라는 제액(題額)은 우암 송시열의 글씨  
다. 또한 내부에는 석천 임억령과 조자이의 시가 현판으로 걸  
려 있다.

맑은 냇가 모래밭의 잔잔한 물결  
남개를 펼친 듯 누각은 배를 담았네  
맑은 달빛 아래서 피리를 부니  
물속에 드리워진 용은 잡들지 못하겠거니

‘환벽영추’(環碧靈湫)

옛적의 선비는 환벽당과 주변의 풍광을 그렇게 노래했다.  
시간의 흐름과 맞물려 당시의 지명은 다소 달라졌겠으나 정  
취는 유사할 것이다.

흥미로운 점은 ‘대로’(大老), ‘송자’(宋子)와 같은 호칭으



환벽당으로 향하는 작은 문.



정자에서 바라본 풍경.

로 불리던 송시열이 환벽당을 편액했다는 사실이다. 환벽당  
외에도 인근 소쇄원의 ‘제월당’을 비롯해 화순의 ‘정암조선생  
적려유허추모비’ 등의 글씨가 우암의 것이라 전해온다. 송시  
열이 유학자로서의 김윤제의 학덕을 높이 평가했으리 짐작할  
수 있는 대목이다.

전덕영 한국학호남진흥원장은 “환벽당의 내력이 기록된 창  
건기나 중수기 등이 발견되지 않아 창건 연대를 정확히 알  
수는 없다”면서도 “그럼에도 이곳을 출입했던 송순이나 임억  
령, 김인후, 김성원, 정철, 백광훈과 같은 문사들의 작품들을  
통해 환벽당의 가치와 역사성, 유래 등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 
있다”고 말했다.

그러면서 “건립 이후로 김윤제의 별서로서의 기능 외에도  
인근의 식영정, 소쇄원과 함께 ‘일동삼승(一洞三勝)’으로 명  
성이 자자했던 곳”이라며 “당대 많은 문인들이 출입해 시문을  
창작한 문학적 공간 외에도 당대 건축과 문화적 특징이 오롯  
이 담긴 의미있는 문화유산”이라고 덧붙였다.

/글·사진·박성천 기자 skypark@kwangju.co.kr



환벽당으로 이어지는 이끼 낀 돌계단들.



정자 입구를 지키고 선 기품있는 소나무들.